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5.2(금) ~ 2024.5.9(목)

제공일시 2023 05 17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5.2(금) ~ 2024.5.9(목)

제공일시 2024 05 17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美 EPA, 석유 및 천연가스 기업에 메탄 배출량 공개 규정 강화

- 미국 환경보호국(EPA)은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지침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힘
- 이번 개정안은 석유 및 천연가스 업계의 실제 메탄 배출량이 EPA에 보고된 것보다 훨씬 큰 것으로 파악됐다는 최근 연구결과에 따라,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시설의 메탄 배출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고 EPA는 설명함
- 개정안은 대량 배출원(슈퍼 에미터)을 식별하고 대규모 배출량을 정량화하기 위한 위성 관측 데이터 사용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또, 주요 배출원에 대한 직접 모니터링 강화와 배출량 계산 방법 개선 등도 포함됨

(ESG경제 2024.5.8) 김현경 기자

2. 호주 광물 채굴에 3억7300만달러 투자 결정, 중국 의존도 낮추기 목적

- 호주가 자국 광물 산업에 수천억 원을 투자함.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국내 주요 광물 매장 지점을 파악하는 작업에 3억7300만달러(약 5037억원)를 투입한다고 발표함
- 호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주요 탐색 목표로 삼은 것은 희토류와 리튬으로 자금 투입은 7월 1일부터 시작됨
- 블룸버그는 호주가 해당 광물들을 탐색하는 이유가 미국과 서방권 주요 동맹국들의 주요 광물 공급원을 대체하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분석함

(비즈니스포스트 2024.5.8) 손영호 기자

3. 중국-프랑스-EU 3자 회담 개최... 전기차 보조금 등 논의 전망

- 중국 시진핑 주석이 6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3자 회담을 개최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함
- 이번 3자 회담에서는 EU가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 분야에서 중국 업체를 조사하는 공정 무역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또, 우크라이나 사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관측됨
- 시진핑 주석이 유럽을 방문한 것은 코로나19 이후 처음임
- AFP통신은 시 주석이 유럽의 강대국 중에서 프랑스를 선택했다는 것은 마크롱 대통령이 2023년 4월 중국을 국빈방문한 이후로 양국 관계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함

(뉴스1 2024.5.6) 정은지 기자

4. 日 정부, 美·EU 이어 'AI 규제 법안' 마련 속도 낸다

- 일본이 미국과 EU에 이어 첨단 인공지능(AI)의 개발과 활용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안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 생성형 AI가 여러 이점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보 확산과 범죄 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한데다, 최근 미국과 영국 및 EU가 첨단 AI 기술과 관련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안 마련에 서두르면서 일본 정부도 자국 형편에 맞는 AI 규제 마련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임
- 정부는 규정 준수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이 이를 위반하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규제의 적용 대상을 대기업 외에 중소 스타트업으로 확장할지 여부도 쟁점임
- 일본 정부는 관련된 논의를 거쳐 오는 6월 수립될 정부 기본 경제·개혁 정책에 AI 규제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포함하고, 2025년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임

(글로벌이코노믹 2024.5.2) 최용석 기자

1. 과기정통부, 2024년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 발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정보보호 공시 대상기업을 발표함
- 올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은 지난해보다 10개사가 늘어난 662개사임
- 의무 대상 조건에 따라 살펴보면,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ISP)가 소폭 증가(+10개사)했으며, 사업 분야(IDC, 상급종합병원, IaaS), 매출액(3000억원 이상), 이용자 수(100만명 이상) 기준별 대상 기업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임
- 올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 기업은 과기정통부 누리집, 공시 종합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정 기업 중 의무 공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13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IT비즈니스 2024.5.8) 오현식 기자

2. “핵심광물 중국 의존 낮추자”... 한국-베트남-호주-인도네시아 손잡는다

- 정부가 베트남, 호주, 인도네시아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한 실무 논의에 착수함
-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광물의 대(對)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수입선을 넓혀두는 방식으로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겠다는 의도임
- 이번 실무 논의의 최종 목표는 3개국으로부터의 광물 수입을 늘리고, 이들 국가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는 것으로 파악됨
- 향후 3개국과의 공급망 협약을 구체화하면 수입선 다변화에 참여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지급해 핵심광물 수입 안정성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

(매일경제 2024.5.3) 이희조 기자

3. 정부 “차세대 원자력 개발 실행 방안... 상반기 발표”

- 정부가 차세대 원자력 기술 개발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상반기 중 발표함
- 7일 과기부 이창윤 1차관은 국제원자력기구(이하 IAEA) 내 혁신원자로 및 핵연료 국제공동프로젝트(이하 INPRO) 대화 포럼 개최식에 참석함
- 과기부는 앞으로 공공 주도의 대형 원전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적극 참여하는 SMR 중심의 차세대 원자로 개발로 정책 전환을 추진함
-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와 다양한 비경수형 원자로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을 조속히 확보하고, 차세대 원자로의 개발·실증에 필요한 기술 확보를 위해 국내외 연구소 간 공동연구와 국내·해외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임

(시사포커스 2024.5.7) 이청원 기자

(대한경제 2024.5.7) 이근우 기자

4. 중기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오는 7일부터 이달 말까지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참여 기업 2차 모집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
- 참여 기업은 생산공정 분석, 제품별 배출량 산정을 위한 공정 분할, 배출량 산정 경계 설정, EU 측 수입업자에 배출량 보고 등 전문인력의 현장 방문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받음
- 또, EU에서 인정한 기관이 사업의 검증기관으로 참여해 현지 노하우를 전수함

(이코노뉴스 2024.5.6) 원종서 기자

5. 서울시, 2033년까지 온실가스 2005년 대비 절반으로 줄인다

- 서울시가 2033년까지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절반으로 줄이기로 함. 6일 서울시는 건물 온실가스 맞춤형 관리와 교통 수요관리·친환경 차 확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함
- 시는 전체 배출량의 67%를 차지하는 건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신축·사용 중·노후건물을 단계별로 나눠 맞춤형으로 관리할 예정임
- 온실가스 배출량의 18%를 차지하는 교통부문에서는 친환경 차 확대, 자가용 운행 수요관리 정책을 펴. 도시에 지열·수열·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보급도 확대할 계획임

(서울경제 2024.5.6) 장형임 기자

1. MS 스웨덴 에너지 기업과 대규모 탄소포집 프로젝트 협력, 333만 톤 규모

- 마이크로소프트(MS)가 탄소중립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대규모 탄소포집 프로젝트를 지원함
- 6일(현지시각) 더 버지에 따르면, MS는 스웨덴 에너지 기업 스톡홀름 엑서지와 함께 이산화탄소 333만 톤을 포집함. 이는 내연기관차 79만 대가 한 해에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맞먹는 규모임
- 양사는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 전력을 공급하는 인근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탄소포집 장비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 계획을 실천함
- MS와 스톡홀름 엑서지는 현재 친환경 발전으로 분류되는 바이오매스 발전에 탄소포집 과정을 추가해 감축 실적을 한층 더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해석됨

(비즈니스포스트 2024.5.7) 손영호 기자
(연합인포맥스 2024.5.7) 배수연 기자

2. 美최초 상업적 규모의 나트륨이온 배터리 공장 가동, 네이트론 에너지(Natron Energy)

- 미국 최초로 리튬 대신 저렴한 나트륨을 사용한 배터리 공장이 가동에 들어갔다고 클린테크니카가 최근 소개함
- 미국에서 실험실이 아닌 상업적 규모로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생산하는 업체는 네이트론 에너지(Natron Energy)임
- 네이트론 에너지의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전력 밀도와 충전 속도에서 기존의 리튬 이온 배터리를 능가하며, 리튬, 코발트, 구리, 니켈 등이 필요 없는 불연성이어서 폭발의 위험이 그만큼 낮음
- 네이트론 에너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리본 커팅 행사를 열고, 미국 미시건주 홀랜드에 연간 600메가와트(MW)까지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했음

(인팍트는 2024.5.7) 홍명표 기자

3. 엑손모빌, 600억달러 ‘메가딜’ 마무리… 세일 생산 입지 강화

- 미국 석유공룡 엑손모빌이 경쟁사인 파이어니어내추럴리소시스(이하 파이어니어)의 인수와 관련해 반독점 당국과의 합의와 도달한 후 거래를 완료함
- 엑손모빌은 이번 거래로 퍼미안의 델라웨어와 미드랜드 분지에서 총 140만에이커 이상의 유전지대를 확보하게 됨
- 이에 따라 퍼미안에서의 생산량이 하루 130만배럴로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엑손모빌은 자사가 보유한 독점 기술을 파이어니어 채고에 결합해 2027년까지는 200만배럴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엑손모빌은 이번 인수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최소 18개월에서 24개월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함

(블로터 2024.5.4) 최경미 기자

4. TSMC “테슬라 AI 슈퍼컴퓨터 탑재 차세대 반도체 생산 시작”

-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도조’에 탑재할 차세대 반도체 칩 생산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짐
- 5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 TSMC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에서 열린 기술 컨퍼런스에서 이런 사실을 공개했다고 보도함
- 차세대 도조는 미국 뉴욕에 설치될 예정임

(연합뉴스 2024.5.5) 김철문 기자

5. 테슬라 대항마 ‘리비안’, 공장 증설 실탄 마련… R2 생산 박차

- ‘테슬라 대항마’로 불리는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리비안(NAS:RIVN)이 본사 소재지 일리노이주의 공장 증설을 위한 대규모 자금을 확보하고, 새로운 보급형 5인승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R2’ 생산에 박차를 가함
- 사측은 일리노이주 노멀의 ‘R2’ 제조 공장 확장 및 인근 인프라 개선·생산직 인력 양성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함
- 리비안은 수개월 내에 공장 증설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힘

(연합인포맥스 2024.5.3) 김현 기자

1. SK, 세계 최대규모 인천 액화수소 공장 가동... '연 버스 5천대 충전'

- 연간 3만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 '인천 액화수소 공장'이 8일 가동을 시작함
- 첫 번째 상업운전을 시작한 수도권 액화수소 공장이 수소상용차 보급 확대 등 수소생태계 확장에 기폭제 역할을 할지 주목됨
- 인천 액화수소 공장은 SK E&S가 약 7천억원을 투자해 인천 서구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 부지에 약 4만 3000㎡ 규모로 조성함. 이 공장에서 연간 약 5천대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액화수소가 생산됨
- SK E&S는 공장 가동을 기점으로 2026년까지 전국에 액화수소 충전소를 구축해 유통망을 넓힌다는 계획

(한겨레 2024.5.8) 옥기원 기자
(서울경제 2024.5.8) 박민주 기자

2. LG에너지솔루션, 中 인버터 기업 그로와트 손잡고 미국 ESS시장 공략

-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그로와트 뉴에너지(Growatt New Energy Co.,Ltd, 이하 그로와트)와 미국 주거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에 협력함
- 8일 그로와트에 따르면, 이 회사는 LG에너지솔루션과 미국에서 호환성 테스트를 진행함
- 양사는 LG에너지솔루션과 주거용 ESS 배터리 '프라임'과 그로와트의 'MIN' 인버터를 연동함. 그로와트의 모니터링 플랫폼을 '시네툴스(ShineTools)'를 활용해 정상 작동하는지 살핌

(더구루 2024.5.8) 오소영 기자

4. 현대차-삼성, 中에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 특허 승인

- 현대차그룹과 삼성이 공동 출원한 고체 전해질 제조법을 중국 국가지적재산권국으로부터 승인받음. 고체 전해질 제조법은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구현에 필수적인 기술임
- 8일 중국 국가지적재산권국(CNIPA)에 따르면, 현대차, 기아, 삼성SDI가 지난해 8월 공동 출원한 '습도 안정성이 우수한 고체 전해질 및 이의 제조방법' 특허가 지난달 말 국가지적재산권국의 승인을 얻음
- 현대차그룹과 삼성은 지난 2020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당시 수석부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이 회동하면서 배터리 분야 협력 의지를 드러낸 바 있음
- 이번 특허 승인은 양사가 공급계약을 넘어 공동개발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협력을 강화한 결과임

(매일경제 2024.5.8) 박재완 기자
(더구루 2024.5.8) 정예린 기자

5. 한화큐셀, 美 솔라허브 카터스빌 공장 본격 가동... IRA 혜택 '1조'

-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이하 한화큐셀)이 미국 조지아주 카터스빌 공장의 모듈 생산라인 건설을 지난 4월까지 모두 완료하고 본격적인 제품 생산에 돌입했다고 7일 밝힘
- 카터스빌 공장은 한화큐셀의 미국 내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 '솔라 허브'의 한 축으로, 연간 3.3GW(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모듈 제조능력을 보유하게 됨
- 4월부터 본격적인 모듈 상업 생산에 돌입한 카터스빌 공장은 내년부터는 연간 3.3GW 규모의 잉곳·웨이퍼·셀 상업 생산에 들어갈 계획임

(SRE타임스 2024.5.7) 윤서연 기자

6. 생산효율 25% 높은 PAFC... 두산퓨얼셀, 하반기 양산

- 두산퓨얼셀이 전력 생산 효율을 25% 높은 '인산형연료전지(PAFC)' 신제품을 하반기부터 양산하기로 함
- 전력 생산 단가를 대폭 낮춘 제품으로, 오는 7월 국내 최초로 발주될 청정수소 발전소 수주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8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퓨얼셀은 대당 550kW 전력을 생산하는 5CSA(PAFC 신모델)를 하반기에 양산하기 위한 막바지 테스트 작업을 하고 있음. 440kW를 생산하는 4CSA보다 생산 효율을 25% 높임
- 두산퓨얼셀은 PAFC 외 다른 수소 전지인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도 내년 5월부터 양산할 계획임

(한국경제 2024.5.8) 김형규 기자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4.5.2(금) ~ 2024.5.9(목)

제공일시 2024 05 17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U, 항공사 대상으로 그린워싱 조사 착수... 에어프랑스, KLM, 루프트한자 그룹 대상

(인팩트는 2024.5.7) 유미지 기자

- 지난 30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EU 소비자 당국(CPC)은 그린워싱과 관련해 20개 항공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
- 조사 대상인 항공사는 에어프랑스(Air France), 네덜란드 계열사인 KLM, 루프트한자 그룹(Lufthansa Group) 항공, 노르웨이인(Norwegian) 항공, 스칸디나비아 항공(SAS)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위원회의 조치는 유럽 소비자 기구(BEUC)가 작년에 몇몇 유럽 항공사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기후 관련 주장을 겨냥한 불만을 제기한 데 따른 것임. 이어 유럽 당국에 항공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비행이 지속 가능하다는 인상을 주는 주장을 중단할 것을 요구함. 또, 소비자가 지불한 '녹색 요금(green fare)'을 소비자들에게 부담시킨 점들, 이를 고객에게 배상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EU의 발표는 최근 네덜란드 법원이 항공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KLM의 주장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이어진 조치임. KLM은 2022년 4월에도 네덜란드광고심의위로부터 탄소중립 허위광고 판정을 받은 바 있음
- 조사의 초점은 대체 항공 연료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탄소 배출량을 줄이거나 완전히 상쇄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준다는데 맞춰짐
- 또, 해당 연료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행위, '친환경' '지속가능한' '책임있는' 등의 용어를 사용해 친환경을 암시하는지 확인하겠다고 전함
- 이어 충분한 과학적 증거를 제공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특정 항공편의 CO2 배출량에 대한 계산을 제공하는 행위와 다른 항공편과 탄소 배출량을 비교하는 행위도 포함됨
- EU는 항공사들이 기후 프로젝트로 상쇄하거나 지속 가능한 연료를 사용해 항공기의 CO2 배출을 해결하는 것에 대한 주장이 타당한 과학적 증거를 통해 어느 정도까지 입증될 수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함
- EU 집행위원회와 EU 소비자 당국은 기업들에게 30일 이내로 제안된 조치를 간략하게 설명할 것을 요청함. EU 집행위원회는 기업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후 EU 소비자 당국 네트워크 및 항공사와 회의를 조직해 기업이 제안한 솔루션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
- 또, 위원회는 합의된 변경 사항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항공사가 서한에서 제기된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EU 소비자 당국은 제재를 포함한 추가 집행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함
- 산업 단체인 유럽항공연합(A4E)은 성명을 통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했지만, 현재 EU의 규정은 국가마다 크게 다르며 여전히 변화하고 있다"라고 밝혔. 이어 "특히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SAF)에 대한 발언과 그들의 환경 영향에 대한 명확한 정당성에 대한 요구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라며 반발함